

##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 1993년도표어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 ◎ 생활지침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발행인: 이종윤 편집인: 이영기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 전화/517-7651~5 팩스/512-1225)

## ❖성탄절 메시지❖

##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송은 크리스마스 캐롤 중 대표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성탄의 의의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라 하겠다. 과연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제가끔 백퍼센트 최선을 다해 살고 최선을 다하다가 죽으면 그만 일터인데 무엇이 부족하여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일까? 우리에게 힘이 있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양심이 있어 역사를 창조하고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터에 어째서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가 중병에 걸려 치해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귀신들려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 광인처럼 싸우고 헐뜯고 그러다가 자멸하고야 말 운명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인, 자살, 고통과 한숨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지 않은가. 만일 우리가 인간 고통을 다 감지할 수 있는 촉각을 가졌다면 우리의 오관은 부서진 지 오래였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고 온 땅에 죄악은 관영하였으니 어느 가슴을 헤치고 들어가 보아도 평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상에 평안이 없다. 자력으로 자기 운명을 유지해 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도 못한 채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떠내려 가고 있지 않은가.

역사에 심판이 있듯이 구원이 있다. 자기들끼리 멋대로 살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인간은 절대로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흠으로 만들어졌고 마른 막대기같은 별레같은 형편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요,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생산이 증대되고 수출로 큰 돈을 벌어들이고 과학이 발전되며 국방이 든든해지고 교육수준이 향상되며 복지국가를 형성해간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사회가 발전해도 인간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 역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실 때까지,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까지는 GNP가 늘어나도 마음 속에 쌓인 불안지수와 불만지수와 허무지수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인류에게 지금 구세주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

그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역사의 방향을 바로 잡으실 수 있고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 각자의 입을 모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

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 진정한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것은 위장된 빛이다. 우리의 공간도 시간도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생각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임하시도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찢기우신 예수님의 깊은 상처를 피상적으로만 보아서는 않된다. 그리스도의 아픔을 통해 사람들의 고통도 볼 수 있어야겠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라 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킴을 받는 우리는 다른 형제들에게 작은 목자가 되어야겠다.

우리는 세계의 마지막 혁명군이다. 우리가 일으킬 예수 대혁명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긍휼을 받게 하는 것 외에는 다

른 것은 없다. 어디를 가나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평화를 심는 것이다. 예수 운동이 구국운동이며 예수믿는 성도들의 기도운동이 세계가 사는 길이다. 이제는 정치도 문화도 사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 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 ❖광야의 소리❖

우리는 오실 예수를  
진정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생활하는가?



# 하늘에는 영광

## ▶메시아를 만날 사람

만민에게 복을 주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모든 부족을 채우시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온 우주의, 온 인류의 기쁨인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을 누가 어디서 맞을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을 손에 들었던 헤롯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알았고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찾아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지식과 믿음의 부족으로,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위대하고도 놀라운 행운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비록 먼 곳에 있었지만 진리에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동방박사들은 별빛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고난을 각오한 이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어떤 값도 치루겠다는 각오로 경배하려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마1:11). 이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기적이고 사변적 이성만을 앞세우는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는 있을찌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됩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겸손으로 옷 입은 자들만이 왕이신 주님께 경배할 수 있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과 진정으로 만납시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도 실현하는 성탄절이 됩시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삶으로 신령과 진정의 경배를 아끼 예수님께 드립시다. 신선한 충격, 놀라운 만남의 성탄절이 됩시다.

김 주 아

(전도사 · 2대교구, 권사회 지도)

## ▶성탄절이 오면 생각나는 이야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 한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리의 강아지가 그만 갑판에서 미끄러져 바다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 소년이 강아지를 구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선장님이 말합니다. “아, 강아지 한마리 때문에 배를 멈출 수는 없단다.” 소년은 울며 물었습니다. “내가 빠졌다면 구해주셨겠지요?” 선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년이 강아지를 안고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장님은 배를 멈추고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나의 점과도 같은 지구 위에 우리는 살고 있다. 많은 태양계와 연결되어 무한히 먼 공간으로 열려 있는 우주는 우리들의 머리 위로, 발 밑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다. 그 속에 작은 점에 불과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꽤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하늘에 충충히 박힌 별들을 보면 저 다윗의 시편 한 구절이 떠오른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너는 두려워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

아멘.

나 소 정

(대학부)

## ▶새 사람 되고보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한 나의 어린시절 성탄절은 평소에는 가지 않던 교회에 가서 먹을 것을 꾸집하게 들고 왔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기독교 교리에 거부감만 가졌던 청년기에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맘 때가 되면 괜실히 마음이 들뜨고 즐겁기만 했었다.

결혼하고 1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육신의 고통을 통해 주님을 만날 눈을 열어 주셨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내 모습의 낮고 죄됨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을 알게 된 후로는 연말과 동시에 오는 성탄절이 되면 주님을 알기 전 무의미하게 보낸 많은 성탄절에 대한 죄스러움과 아울러 현재 생활을 반성도 해보고 낮은 자리로 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하게 된다. ‘얼마만큼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던가? 형제들을 얼마나 위로하였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했던가?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해 왔던가? 내 속에 넘치는 평강을 전하려고 얼마나 힘을 썼던가?’

내년 우리 주님의 생신에는 좀 더 나은 보고서로 선물을 준비하리라고 결심하며 굳게 닫힌 휴전선 너머에도 사랑과 평화와 기쁨에 넘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해 본다.

김 양 숙

(집사 · 10 교구)

## ▶성탄절에 등장하는 생각나는 분

크리스마스 촛불에서 세상의 빛이신 분.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 또 하나의 나무. 크리스마스의 활기찬 분. “평안하라” 하신 그분의

크리스마스 잔치에서 생명의 떡이신 분. 크리스마스에 내리는 눈.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에 울리는 종.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송가. 우리가 선포해야 할 기쁜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 그분의 독생자.

그리하여 이 크리스마스 계절은 모든 것에서 왕이신 분을 생각나게 하나니...



그분은 바로 예수



서정 ☆

# 땅에는 평화



## ▶ 성탄절이 오면 생각나는 일 - 고양이와의 대화

한밤 중 무언가 무너져내리는 듯한 소리에 잠을 깬다. 고양이들 소리였다.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두마리가 집안 발 닿는 곳 모두를 운동장 삼아 장난을 하고 있는 소리였던 것이다. 어느 놈이 쫓고 쫓기는 건지 구분할 수도 없이 후다닥 뛰다가, 과장된 몸짓으로 괜실히 엎치락 뒷치락 장난을 치고 있는 고양이들의 모습은 귀엽고 사랑스럽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다시 잠자리에 들려 하니 간헐적으로 들리는 그들의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일 놀려мна, 지금은 밤이니... 우리 인간들은 내일을 위해 이시간에는 휴식을 취해야만 한단다'라고만 내 의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신사적으로 다가가도 내 모습만 보면 무슨 죄라도 짓다가 발각된 양 손이 닿지 않을 곳으로 숨어서 장난기가 가득 어린 표정에 눈을 반짝이며 약을 올렸다. 그 때의 경우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였다. 그 첫째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고양이들이 - 그 중 한 녀석만이라도 - 사람의 언어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것. 다른 하나는 내가 고양이가 되어 '야옹, 야-옹'으로 말하는 것.

상상의 나라를 펴서 내가 고양이가 되어 야옹거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 하신 요한복음 1장의 구절들이 생각났다. 낮고 무지한 인간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사랑. 무한히 베푸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심중을 모르고 하나님을 피해 자꾸 제 길로만 가는 인생. 그 인간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 표현의 방편으로, 독생자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을 뿐 아니라 바른 가치관과 삶의 의미와 목표를 제시하시고, 옳게 살아가는 방법과 섬김의 양태에 대해 친히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간과의 대화 방법이셨다.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비천한 모습으로 자기 땅에 오셨고 모욕과 천대 속에서도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다.

성탄절이 올 때면, 외람되게도 고양이와 대화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다가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위한 열심의 극치였음을 깨달은 감격으로 하얗게 밤을 새버린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한다.

박은경  
(청년부)

## ▶ 이번 크리스마스엔...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올해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이 날을 맞이하고 프다. 사실 성탄절이 어떤 날인 것을 너무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맘때가 되면 내 기분을 따라 내 중심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곤 했던 것 같다. 마치 내 생일인 것처럼...

올해는 좀 의미있게 보내려고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일들을 찾아 묵상하며 차근차근 읽어 보기로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다. 비록 마굿간에서의 초라한 탄생이셨지만 동방박사의 경배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셨다. 별들도, 목자도 이 영광스러운 일을 알리는 데 동참했다. 예수님은 그 탄생하심처럼 생애도 순수하게 사셨다. 고통 중의 많은 사람과 슬픔을 함께 하시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만 순종했다.

이제까지는 성탄절에 예수님보다는 내 기분을 따라 마냥 들뜬 채 지냈지만 주님의 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으려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린 아기에게 경배한 동방박사처럼 나도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배해야겠다. 찬양을 불렀던 천사들과 목자들처럼 영광스런 주님께 나도 찬양을 해야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올해 성탄절이 되고 싶다.

이은아  
(중등부)

## ▶ 성탄절에 돌아보아야 할 이웃

올해는 이상기온인 냉해로 인하여 온 나라가 걱정으로 시끄러웠는데, 겨우 잠잠한 듯 하더니 쌀 시장 개방으로 또 다시 떠들석하다. 그렇지 않아도 농부들은 빈쑥정이를 많이 수확하여 속이 상해 있는 판인데, 설상가상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비통한 소식이겠는가?

농기구와 벼를 모아 불사르는 모습 속에 자기 삶의 전부로 여겼던 모두를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농촌에서 자란 나로서는 가슴이 매우 아파온다.

명예도 모르고, 아침도 모르며, 또한 이 눈치 저 눈치도, 그리고 한탕주의도, 거짓은 더 더욱 싫기에 진실만이 있는 땅에서 흙 냄새 밟아 심은 대로 거두었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결실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순박하게 살아온 그들이 아니던가?

시장개방이 대세요, 국익이 우선임을 모를 리 없지만 웬지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을 잃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란다.

지금 누가 성난 저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쉼터요, 생명의 젖줄이다. 그 젖줄을 바꿀 수는 없지 않겠는가? 성탄절 우리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되 올해에는 특별히 어려가지로 아픔을 겪고 있을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이번 기회로 우리 모두 농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도움 일을 찾아 우리 농산물을 애용함은 물론 더욱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하겠다.

김승기  
(집사·10교구·고등부 교사)

것에서

다가신

속에서

에서

력.

에서

아침.

.



## 성탄 축하행사

“기뻐하며 경배하자”

### 성탄전야축제☆성탄절 새벽예배☆성탄감사예배

24일(금) 오후 7시부터 중앙대학교 대극장에서 경배와 축제의 시간을 갖는다.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찬양과 성극, 연주 등으로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며 복음의 소식을 널리 알린다. 선물교환의 순서가 있으므로 각자 2,000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고, 다락방별로는 간식을 준비하여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자세한 일정과 약도, 교통편은 전단을 참고하면 된다.

성탄절에는 새벽 5시에 성탄절 새벽예배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예배를 각각 교회에서 드린다.

## 오늘 교회학교 교사임명식

- I, II, III 예배 시에 -

오늘 I, II, III 예배시에 1994년도에 천국시민을 양성할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한다. 오늘 임명식에서는 교육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 산하 11개 교회학교의 교사 총 283명이 임명을 받는다.

## 새가족부 특강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새가족부는 오늘 12시 40분부터 5층 새가족부실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가진다. 강사는 가족문제 세미나를 전문으로 하는 주수일 장로이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젊은 이들이 많이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중등부 성경퀴즈대회 연말결선

- 최종 승자에게 장학금 지급 -

중등부는 오늘 성경퀴즈 연말결선대회를 가진다. '93 상반기와 하반기에 예선을 통과한 12명의 학생이 학년의 구분없이 출전하며, 결선에서의 최종 1, 2, 3등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고 한다.

## 중, 고등부 성탄절 행사

- 제 2 회 「아이노스 문학과 찬양의 밤」-

성탄절을 맞이하여 중·고등부는 연합으로 제2회 「아이노스 문학과 찬양의 밤」을 개최한다. 25일(토) 오후 3시부터 2층예배실에서 가질 이 행사를 위해 시낭송, 독창, 중창, 풍토, 성극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성탄절에 드리는 기도



## 일년 내내 크리스마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내 마음에  
당신을 위한 방이 있나이다.

주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인간의 마음에 널리 비취는  
그 정신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당신이 새롭게 기억되길 바라며  
수많은 우리의 앞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친구가 되어주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마음에서  
크리스마스가 살아있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음산한 겨울 날에도  
계속 빛을 발하고 따스함을 풍기며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 정신을 그대로 지녀  
크리스마스 이브 때처럼  
오늘도 친절하고 상냥할 수 있게 하시며  
내일은 크리스마스날 아침처럼 관대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도움으로 성탄 정신을 가지고  
한 주일을 꼬박 지낼 수 있다면  
또 다른 주일도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년 내내 크리스마스가 계속된다는 사실에  
격려받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 피터 마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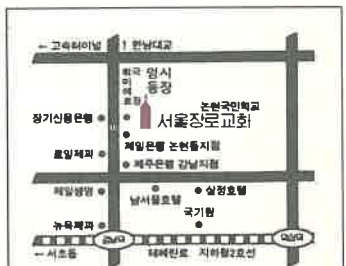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나의 갈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 부 오전 09:00<br>II부 오전 11:00<br>III부 오후 02:00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05:00                                   |
| 수요 예배     | I 부 오전 11:00<br>II부 오후 07:00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09:00                                      |
| 새벽 기도 회   | 매일 새벽 05:30                                   |

### ■ 교회위치



## 서울주간기도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성전부지를 허락하옵소서.
2. 성탄절과 연말 행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3. 새로 임명된 일꾼들이 충성스럽게 봉사하게 하옵소서.
4. 입시생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